

#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지음



#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8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 은 이 | 전중욱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8년 5월 12일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http://www.ilovekj.com)

표지사진 | 안성식 [jetspeed@nate.com](mailto:jetspeed@nate.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91-6

정가 7,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추천사

먼저, 지난 20년 가까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 오신 전종욱 목사님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예언'에 관해 편찬하신 문서를 출간하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점쟁이들이나 사이비 목사들이 거짓 예언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사41-48).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벧전1:2).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무엇인지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바로 이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정확하고 완전한 성취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행 20:28)을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본서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하며 추천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된 김영준

# 머리말

서점에 가면 역사에 관한 수많은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지방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한 사람의 역사, 어떤 문화의 역사, 종교의 역사.... 이토록 많은 역사책들이 있지만 모두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역사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과거의 역사에 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미래의 역사를 쓸 수는 없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역사(歷史)’라는 말 자체가 과거의 일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역사에 관한 아주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BC 1500년부터 시작하여 AD 96년경에 쓰기를 마친, 1600년 동안 쓴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이 이 책을 썼습니다. AD 96년 책 쓰기가 끝난 후로는 누구도 이 책에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보완할 필요도 없었지만 보완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그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적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출간되고 있지만, 이것은 19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1900년 전에 쓰인 과거의 책이지만 그 내용이 AD 100년 이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AD 1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AD 3000년까지의 미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와, 그 이후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미래의 일로 예언이었던 것 대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미래에 속한 예언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과거의 역사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책에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가 담겨있는지를 안다면 누구나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디 제임스 케네디의 <내가 믿는 이유>라는 책에서 두로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놀랐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지나쳤던 두로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성경의 예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언에 관한 책이 많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서점에 갔지만 예언과 성취에 관한 책을 찾지 못하여 실망했습니다. 예언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책이 없을까? 그러다가 Keith Piper의 <Answers Book>과 조시 맥도웰의 <기독교의 역사적 증거들>을 읽으며 예언에 관한 책을 직접 써 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독창적인 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게 되어, 이 예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기를 바라며, 이토록 경이로운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차 례

머리말 .....	004
예언이란? .....	007
〈거짓 예언들〉 .....	010
예언의 특징 .....	015
1. 두로 .....	018
2. 이집트 .....	026
3. 니느웨 .....	038
4. 바빌론 .....	052
5. 알렉산더 대왕 .....	067
6. 이 세상은? .....	071
7. 이스라엘 .....	081
8. 예수 그리스도 .....	107
9. 사탄 (= 마귀, 옛 뱀, 큰 용) .....	145
맺는 말 .....	158
예언자들의 활동시기 .....	160
간단한 예언의 성취 확률 .....	161

# 예언이란?

예언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위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해의 굵직한 사건을 예언하지만 지나고 보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기사입니다. 일정금액으로 일정기간 전문 주식 투자분석가들과 새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느냐 하는 대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문주식 투자분석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정하였고, 새는 상장회사의 이름이 기록된 카드를 무작위로 뽑으면 그 종목에 일정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문주식 투자분석가들의 패배였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고의 엘리트 전문주식 투자분석가들의 수익률은 2%대였고 새가 뽑은 종목에 투자한 수익률은 3%대였습니다. 이 결과는 사람의 예측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주체가 신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것도 우주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God)이 말씀하셨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백 가지를 예언하여 백 가지가 다 틀렸다고 해도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맞혔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됩니다. 사람에게에는 예언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백 가지 예언 중 50 가지는 정확하게 맞히고 50가지는 틀렸다

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아니 백 가지 중 99 가지는 정확하게 맞히고 한 가지만 틀렸다 해도 대단한 적중률이지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재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틀린 예언이 있다면 그 예언을 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 코란, 베다경전, ... 이들의 경전에는 예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 경전은 모두 예언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 25%가 예언입니다. 사람의 예언은 백 가지 중 한 가지만 맞아도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백 가지 중 단 한 가지만 틀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많은 예언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 중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경전처럼 아예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 많은 것들이 지금 당장 그 예언이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누구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진짜 예언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언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알게 하시고 대비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트코드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고 일어난 이후에야 유추해서 꿰어 맞추는 그런 예언은 있으나마나하며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둘째, 예언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매주 있음을 압니다. 복권의 수는 1에서 49까지 총 49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주의 당첨 번호 6개를 다 맞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매주 있지만 그들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매주 1등을 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6개의 숫자를 맞춰 1등에 당첨되었다 해도, 일관성이 없으므로 예언이 아닙니다. 만일 한 사람이 매주 1등을 맞힌다면 일관성이 있으므로 그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언은 정확성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100% 정확해야 합니다. 예언이 100% 정확하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100%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100%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언의 90%만 맞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90% 밖에는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10%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90% 적중은 매우 높은 적중률이기에는 하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믿고 맡기기에는 부족합니다. 언젠가 길에서 본 안전운전 글귀입니다. “수십 년 무사고 운전 자랑 말자, 단 한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 거짓 예언들

세상에는 거짓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우리나라 굴지의 항공사에서 정비 일을 하는 큰 아들이 그 직장에 잘 적응할 것인가가 걱정되어서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걱정마라.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간다.”라고 하는 말에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오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 아침에 출근했던 큰 아들이 집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하여 큰 아들에게 “어떻게 이 시간에 집에 왔느냐?”라고 물으니 “회사를 그만 두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점쟁이는 오늘 일도 모르더라.”라고 꼬집었습니다.

거짓 예언들은 기독교에도 많이 있는데,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거짓 예언들이 많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예언하여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영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1992년 10월 28일 교회는 휴거되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여 대한민국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사건.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패밀리 라디오의 설립자 해롤드 캠핑은 2011년 5월 21일에 교회는 휴거 되고 세상에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미국 전역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소동을 일으켰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5월 21일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정확하게 계산하여보니 10월 21일이라고 수정 발표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해 10월 21일에도 교회의 휴거는 없었습니다.

- 이단 ‘여호와와 의 증인’의 시조인 찰스 테이즈 러셀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여러 번 예언하였습니다. 1874년, 1914년, 1984년… 계속된 예언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이 틀렸다고 시인하지 않고,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였다며 자신들의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신 것을 증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들의 전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이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사도행전 1:9~11)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은 대언자 시드기야에게 전쟁의 결과를 물었고 시드기야는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찢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를기를,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열왕기상 22:11,12)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다른 대언자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내키지 않았지만 대언자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그가 패하여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즉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열왕기상 22:17)

시드기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을까요?

아합 왕은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전혀 다른 예언을 듣고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합 왕은 만일을 대비하여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게 하고 자신은 왕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한편, 적진의 시리아 왕은 전쟁에 임하는 32명의 병거 대장들에게 전투지침을 내립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열왕기상 22:31)

시리아의 병거 대장들이 왕복을 입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쫓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리아의 병거 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리아의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 변장을 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아 아합 왕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자신이 부상을 입었음을 알리고 전쟁터에서 빠져나가 상처를 치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싸움이 더 커졌으므로 이 중요한 순간에 군대의 대장이 빠져나간다면 전쟁의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아합 왕은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상처에서 나온 피로 병거를 적시며 저녁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해질녘에 군대에서 두루 선포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도시로 각각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열왕기상 22:36)

전쟁의 결과는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왜 아합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을까요? 거짓말하는 영이 시드기야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은 거짓말하는 영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야의 말입니다. 열왕기상 22:20~23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라뭇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다른 거짓 예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5:8~11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망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 소리와 등불 빛을 제거하리라.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을 섬기리라.”

그러나 거짓 예언자 하나나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만 2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명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만 이 년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내가 또 바빌론으로 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바빌론 왕의 명에를 꺾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예레미야서 28:2~4)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2년이라고 예언합니다. 누구의 예언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됩니다. 2년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옳은 것이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온다면 예레미야가 옳은 것입니다. 결과는 어찌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으로 2년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BC 605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Cyrus 사이러스 혹은 키루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귀환 칙령을 내림으로써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었습니다.

에스라 1:1~4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 예언의 특징

## 1)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5:20,21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무당은 이 신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예언합니다.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God)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 2)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4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 3) 성령님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21

“대언(the prophecy)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

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 4)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20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 5) 언제나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10

그래야 예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모르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 6) 사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18,19

“내가 이 책의 대언(prophecy)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는 실수나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예언이 아닙니다. 또 예언의 내용을 사람이 알고서 그 결과를 바꾸었다면 그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님의 예언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여자의 씨가 자신을 멸할 것을 압니다(창 3:15). 그는 여자의 씨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예언의 점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많은 경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이여, 너희의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보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 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대언한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 중에서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며 내가 이른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에스겔서 12:25~28)

# 1

## 두로(Tyre 티레)

BC 590년 에스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6:1~14

1. 두로는 파괴되고 잔해는 물속에 던져져 두로가 바위의 꼭대기 같이 깨끗하게 되며 그물 치는 장소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26:4~14

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녀의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겨 내어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되게 하리라.

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데려와 두로 위에 임하게 하리라.

8 그가 들에 있는 네 딸들을 칼로 죽이며 너를 치려고 보루를 만들며 너를 치려고 작은 산을 쌓으며 너를 치려고 작은 방패를 들어 올리며

9 네 성벽을 치려고 전쟁에 쓸 기계들을 세우며 자기 도끼로 네 망대들을 헐리라.

12 그들이 네 재물을 노략하고 네 상품을 탈취하며 네 성벽들을 헐고 네가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물 한가운데 놓으리라.

14 또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할 터인즉 네가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 〈예언의 성취 과정〉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2세는 BC 585~573년 까지 13년에 걸쳐 페니키아의 중심도시 두로를 포위공격 하였습니다. 두로 성은 1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포위공격을 견디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함락시키기 위해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보루와 작은 산들을 쌓고 성벽을 치기 위한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루와 작은 산을 쌓는 일은 병사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두로의 성벽을 부수고 진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3년 동안이나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성 밖에서 고생하게 한 두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두로 사람들은 해안에서 800m 떨어진 섬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내륙에 있는 두로는 철저히 파괴되었으나 섬은 느부갓네살로부터의 참화를 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로의 티끌을 끌어내어 바위의 꼭대기같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한 공격을 13년이나 견디게 한 두터운 성벽의 산터미 같은 잔해들은 여전히 그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잔해들이 모두 물속에 던져지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시 두로를 건설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시를 다시 건설하지도 않을 건데 누가 그 많은 잔해들을 치우겠습니까? 또 치우려 해도 누가 그 많은 잔해들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치울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잔해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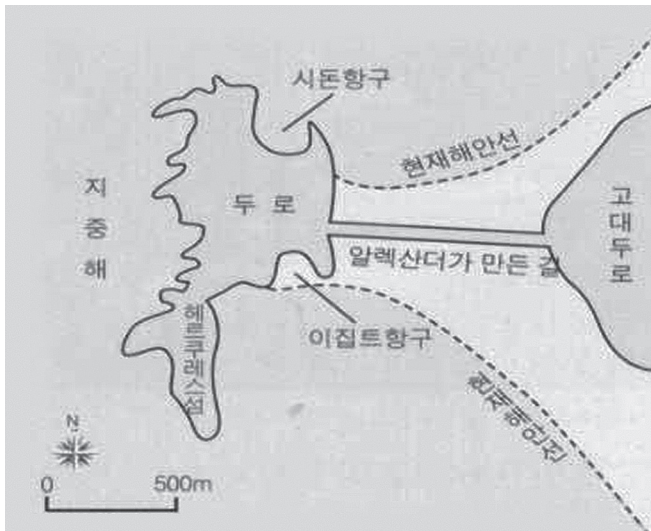
이 예언은 250년이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Alexsander the Great)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Persian Empire, ‘바사’라고도 함)을 공격하기 위해 4

만 명의 마케도니아인과 약 1만 명의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다르다넬스 해협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때 페르시아의 강력한 함대는 다른 곳에서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그곳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해협을 건너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3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BC 333년의 이수스 전투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 군대의 추격을 피하여 육지로 도망하였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인 알렉산더는 육지로 도망한 다리우스를 쫓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해군의 후방 위협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강력한 페르시아의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항구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지중해의 동해안에 있는 항구들의 항복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냈습니다. 그때까지 두로는 페르시아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였을 때 알렉산더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두로에게 항복을 요구하자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하의 알렉산더라 하여도, 해안에서 800m나 떨어져 있고 깊은 바다와 빠른 물살의 흐름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으며 섬의 둘레가 모두 성벽으로 쌓인 요새화된 두로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알렉산더도 250년 전의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해군이 있다 해도 두로를 공격하기 어려울 텐데, 육군밖에 없는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격하겠다고 하자 두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두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이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바다에 독길을 만들게 했습니다. 250년 전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두로의 산터미 같은 폐허터미들을 바다를 메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산터미 같은 잔해들은 마치 알렉산더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친히 등짐으로 돌을 날랐다고 합니다. 두로와 페르시아 함대의 방해

가 있었지만 알렉산더는 7개월 동안 옛 두로 성벽의 잔해들과 바위들로 바다를 메워 두로 섬까지 길이 800m, 폭 60m의 독길을 만들어 결국 두로를 공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로는 7개월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녀의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겨내어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되게 하리라.”**라는 에스겔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독길은 현재도 남아 있으며 지금은 두로가 섬이 아니라 반도가 되어있습니다. 옛 두로 지역은 모든 잔해들이 바다를 메우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바위 꼭대기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라는 예언도 문자 그대로 258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어부들은 옛 두로의 깨끗하고 평평한 바위 위에 그물을 말립니다.

두로가 멸망한지 약 2600년이 지났지만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라는 예언대로 지금까지 그 지역에는 도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옛 두로 지역에는 도시가 세워질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의한 건축물 잔해가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2. 느부갓네살은 두로에서 전리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서 29:18

“사람의 아들이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큰 수고를 하게 하여 두로를 쳤으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졌도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보수 곧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두로 성을 치기 위하여 보루를 쌓고 산을 쌓느라고 병사들의 머리가 까지고 어깨가 벗겨질 만큼 힘들여 두로를 완전히 파괴하고 승리를 거두었으나, 페니키아에서 가장 부요했던 도시 두로에서 전리품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두로 사람들의 일부가 해안에서 800m 떨어진 섬으로 몰래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3. 두로는 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26:3,5

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5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것이 민족들에게 노략물이 되며”

두로는, 한때는 교역의 중심도시로 번영을 누리던 페니키아의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8,7세기의 대부분을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민족들이 파도처럼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BC 585~573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BC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 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

BC 200년에는 그리스의 셀레우코스 왕국의 일부가 되었고, BC 6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AD 638~1124년까지 이슬람교도의 지배를 받았고, 12,13세기에는 십자군에게, 1291년에는 이슬람교도인 맘루크인들에게 점령됨으로 두로는 그들의 노략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두로를 치러오고 두로는 그들의 노략물이 되리라는 예언대로였습니다.

### 두로에 왜 이러한 예언이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BC 1000년경 두로의 히람 왕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과 화평하였고 동맹을 맺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히람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집(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많은 백향목들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그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열왕기상 5:1)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매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열왕기상 5:12)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약 사백 년이 지난 후, 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두로의 경쟁 상대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두로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하여 예언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여,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아하, 백성들의 문이던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

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에스겔서 26:2)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5).

두 번째 이유는 두로의 교만 때문입니다.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 국가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무역하던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의 이름과 그들의 취급품목들도 나와 있습니다(에스겔서 27장). 두로가 시돈을 제치고 페니키아의 제일의 도시가 된 전성기는 BC 10세기부터였으며, 북아프리카에 식민 도시 카르타고와 카디즈를 건설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와 경쟁할 만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두로에게 이르기를, 오 바다의 어귀에 있으면서 많은 섬을 위하여 백성들의 상인이 된 너 두로야”(에스겔서 27:3) 두로는 무역을 통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네가 네 지혜와 네 무역으로 네 재물을 불렸고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에스겔서 28:5)

두로의 왕은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 있다.”(에스겔서 28:2)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의 왕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데려다가 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어 네 지혜



의 아름다움을 치며 네 광채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리리니 네가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죽음 당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여전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오직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 안에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네가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에스겔서 28:6~10)

## 2 이집트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의 하나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BC 2100 년경) 이미 국가의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창세기 12:14~20). 이집트의 군주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인간인 동시에 신이기도 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멈추었으며 요셉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하여 약 230년 동안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대인 고센 지역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며 명령하시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신명기 17:16)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숙박의 집이요(신명기 5:6), 쇠 용광로요(신명기 4:20), 노예들의 집이요(신명기 7:8),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신명기 10:19). 그러나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남은 자들은 대언자 예레미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친(親)이집트 정책으로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또 이집트는 교만하여 자신이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노라, 하였도다.”

(에스겔서 29: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할 뿐임을 보이십니다.

이집트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 1. 이집트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46:2,6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요,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 있던 이집트 왕 파라오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사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쳤더라. …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할지니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북쪽을 향해 쓰러지리로다.”

### 〈예언의 성취 과정〉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의 국제정세입니다.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제국 아시리아는 아시리아의 속주였다가 독립한 강력한 바빌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 의해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었으니, 기원전 612년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실상 국가로서 거의 몰락 상태였으며 대신 바빌론이 새로운 북방의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남방의 강대국인 이집트는 아시리아가 힘을 잃은 사이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북방의 바빌론의 강성함에 불안을 느끼고, 거의 몰락 상태에 있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 바빌론의 남하를 공동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원수관계였지만(열왕기하 23:29) 아시리아가 멸망하면 바빌론의 다음 목표는 이집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패퇴한 아시리아가 제 2의 수도를 정하고 전열을 정비하자 기원전 609년 아시리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Necho)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에티오피아, 리비아, 루디아의 연합군을 이끌고 유프라테스강 북쪽의 갈그미스(현재의 제라블루스, 지중해 부근 알렙포에서 북동쪽으로 역 100km 떨어진 곳)로 올라가 바빌론의 군대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느고는 군대를 갈그미스에 주둔시키고(예레미야서 46:2) 자신은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BC 605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군대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바빌론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바빌론에게 빼앗겼습니다.

## 2.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다.

에스겔서 29:17~20

“제이십칠년 일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큰 수고를 하게 하여 두로를 쳤으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졌도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보수 곧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가며 그녀의 노략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그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보수가 되리라. 그가 두로를 칠 때에 행한 수고로 인하여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 〈예언의 성취 과정〉

BC 605년,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바빌론에 불복한 일부의 이스라엘인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가져다가 이집트의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어귀에 숨기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세우고 그의 천막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고 내가 숨긴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세우리니 그가 그 돌들 위에 왕가의 천막을 치리라.”(예레미야서 43:10)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빌론에게 불복하여 바빌론의 적대국인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로서는 바빌론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들을 받아준 이집트를 벌하여야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의지하여 내려간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나라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이집트 땅을 쳐서 죽일 자는 죽음에 넘기고 포로 삼을 자는 포로로 넘기며 칼로 칠 자는 칼에 넘기리라. 또 내가 이집트의 신들의 집에 불을 지르리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며 또 목자가 자기 옷을 입을같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평안히 거기에서 나아가리라. 그가 또한 이집트 땅에 있는 벤세메스의 형상들을 부수고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하라, 하시니라.”(예레미야서 43:11~13)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여러해 전 느부갓네살이 지중해안에서 무역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된 페니키아의 두로를 13년 동안 포위하여 보루를 쌓고 작은 산들을 쌓느라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까질 만큼 수고하여

힘들게 정복하였으나 이미 상당수가 800m 떨어진 섬으로 피신한 후였으므로 이렇다 할 전리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신 이집트를 쳐서 전리품을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의 재위 37년이었습니다. 패자인 이집트의 역사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치스런 역사를 감추고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인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이 미스라임(이집트를 말함)을 공격한 사실을 점토판에 기록해 두었으며 이 점토판은 19세기에 발굴되어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미스라임은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창세기 1:6) 미스라임은 루딤(아프리카인), 아나뮐, 르하빔(이집트 서부에 정착한 루빔족), 납두힘(아스완 아래쪽 이집트 중부지역 거주자들), 바스루십(이집트 상부지역의 파트로스족), 갑도림을 낳았습니다(창세기 10:13,14). 이들은 모두 이집트의 민족입니다.

### 3. 이집트가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29:8~12

8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네 위에 임하게 하고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터인즉

9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10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시에네 망대로부터 에티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11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며 사십 년 동안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12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의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데서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흠으며 그 나라들로 그들을 흠어 버리리라.”

### 〈예언의 성취과정〉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재위기간은 BC 605~BC 562년까지의 43년 동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37년째에 이집트를 침략하였음이 바빌론의 점토판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37년째는 BC 576년입니다. 바빌론이 메대-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으로 노예가 된 각 민족을 되돌아가게 한 것이 BC 536년입니다. 이집트는 정확히 4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 4. 이집트는 미천한 왕국이 되고 통치자가 없을 것이다.

에스겔서 29:15, 30:15

에스겔서 29:15 “그것이 왕국들 중의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되어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줄어들게 하여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0:1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놋에서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집트 땅의 통치자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두리라.”

## 〈예언의 성취 과정〉

이집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이후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땅에서 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빌론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곳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더라.”(열왕기하 24:7). 그때 이후로의 이집트 역사가 이 예언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지배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C 536~BC 333년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총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프삼메티크 3세는 페르시아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자 이집트는 그리스를 지원했습니다. 마라톤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으나 페르시아는 이집트가 그리스를 도운 것을 패섬하게 여기고 이집트를 잔인하게 억압하였습니다.

2) BC 332년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자 200년간 페르시아의 억압에 시달리던 이집트는 알렉산더 대왕을 그들의 해방자로 환영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집트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BC323년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프톨레미우스가 이집트의 권리를 넘겨받아 BC 30년까지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 왕조(BC 305~BC 30년)를 열게 됩니다.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BC 51~BC 30년)은 바로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3) BC 30~AD 642년까지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이집트는 유일한 독립국이었으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64년 로



마의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속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클레오파트라  
의 아버지인 프톨레미우스 12세는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서야 왕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로마의 카이사르의 힘을 빌려  
이집트 왕이 되었고 카이사르의 연인이 되어 로마에 머물며 로마의 통치  
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암살됨으로 로마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던 그녀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는 이집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카이사르 이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와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  
의 3두정치가 시작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를 관할하게 된 안  
토니우스를 이용하고자 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옥타비아누  
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로 공격해오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합세하여 악티움에서 결전  
을 벌였으나 패배합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적의 포로로 평생을 치욕스럽게  
사느니 자살을 택하였으니 이것이 기원전 30년입니다.

4) AD 641년~1798년까지 이집트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때  
부터 이집트는 회교국이 됩니다.

5) 1798~1801년까지의 짧은 기간 프랑스가 점령합니다.

6) 이후로 알바니아인으로 알려진 무하마드 알리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1882년까지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7) 1882~1922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였습니다. 영국은  
1875년에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관리권을 갖게 되는데 이집트의 우라비  
파샤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운동으로 이집트의 와탄당이 정권을 잡게 되자  
영국은 총독을 도와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1882년 군대를 투입하  
여 1954년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24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미천한 왕국  
이 되었고 순수 이집트 출신의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 5.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19:17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이것은 BC 740년경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약 27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에게 1947년 유엔이 드디어 독립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차(1947년), 이집트는 계속해서 아랍권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2차(1956년), 3차(1967년), 4차(1973년),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으나 모두 이집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가 UN의 도움으로 되찾았습니다. 2차, 3차는 이스라엘의 선공으로 패했다고 하여도 4차는 이집트가 시리아와 연합하여 소련제 무기로 중무장하고서 먼저 기습공격을 하여 초반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차전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겨우 1백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위군은 전쟁 중에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현재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권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호전적이면 서도, 눈에 가시 같은 인구 6백만 남짓의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어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6.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예언

1)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라는 이 예언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 연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8:5,6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페르시아는 현재 이라크와 이란이며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이며 고멜은 독일이라고 추정합니다.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은 터키와 러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연합군은 이라크,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수단, 독일, 터키, 러시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차전의 명단에 이집트와 요르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차의 전쟁을 치를 때 단골로 참전하였던 두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과거 4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마지막 전쟁에서 참전을 주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천년 왕국에서도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멀지않은 날에 이 땅에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대환난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유다(이스라엘) 땅은 문자 그대로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나라들이 주께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

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만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리하리라.”(스가랴 14:16~19)

이로 보건대 이집트는 그날에도 이스라엘 땅에 올라오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대로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3) 이집트에는 명목상의 통치자도 없을 만큼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9:15, 30:13)

현재의 이집트가 과거의 화려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미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이집트가 주축이 되어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연합하여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물론 모두 패배하였지만 이집트가 아직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가장 미천한 왕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앞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이집트가 40년 동안 포로가 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9:10~13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시에네 망대로부터 에티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며 사십 년 동안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의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데서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흠으며 그 나라들로 그들을 흠어 버리리라.” (요엘 3:19, 이사야서 19장, 예레미야서 46장)

5) 그러나 이집트에 나쁜 것만 예언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9:19~22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 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집트는 과거에서 최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되고 통치자도 없이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 3

## 니느웨(Nineve)

니느웨는 대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이며 지금의 이라크 모술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노아 홍수와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이 세운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BC 960년부터 BC 612년 멸망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Sennacherib 세나케리브라고도 함)이 BC 700년에 수도를 니느웨로 옮기면서 니느웨가 가장 흥하였습니다. 산헤립은 니느웨를 통해 어떤 도시도 견줄 수 없는 대제국의 위엄을 보여주하고자 그에 걸맞은 도시로 건축하였습니다. 성벽의 너비는 9.6m로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높이는 23m나 되었고 성벽을 빙둘러 넓이 24m의 방어용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길이는 남북이 4.8km, 동서가 1.2~1.6km로 니느웨의 전체 면적은 7km<sup>2</sup>입니다.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요나서 4:11). 성문이 15개, 망대가 2천개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니느웨의 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요나 3:3) 그러므로 니느웨는 자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스바냐 2:15) 니느웨에는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빼앗거나 조공으로 받은 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대언자 나훔은 기원전 7세기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예언의 시기는 BC 663년 ~ BC620년 사이입니다)

## 〈나훔〉

1:1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1:8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 나는 큰물로 거기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 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1:10 그들이 가시나무들같이 함께 엉켜 있고 술 취한 자들같이 취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같이 소멸되리라.

1:14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은즉 다시는 네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네 무덤을 만들리라. 이는 네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2:6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2:8 오직 니느웨는 옛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으나 그들이 도망하리라.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서라, 서라, 하여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9 너희는 은을 노략하고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이 끝이 없도다.

2:10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으매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느도다.

3:11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3:12 네 모든 강한 요새는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나무들 같도다. 그것들을 흔들면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으로 떨어지리라.

3:13 보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백성은 여자들이니라.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네 빗장들을 삼키리라.

3:14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네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3: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끊되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치우리라. 너는 자벌레같이 네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네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3:17 관을 쓴 너의 사람들은 메뚜기들 같고 너의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 같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나 해가 뜨면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 수 없느니라.

3:18 오 아시리아 왕이여, 네 목자들은 잠자고 네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며 네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3:19 네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네 부상은 심하도다. 네 소문을 듣는 모든 자가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이는 네 사악함이 항상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 〈예언의 내용〉

1. 니스웨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1:8, 2:6,8
2. 니스웨가 멸망할 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1:10, 3:11
3. 다시는 니스웨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1:14
4. 니스웨는 그들의 신들과 함께 무덤이 될 것이다. 1:14
5. 니스웨의 보물들은 모두 약탈당할 것이다. 2:9,10
6. 그들의 마음이 녹아 얼굴이 검게 될 것이다. 2:10
7. 니스웨는 쉽게 정복될 것이다. 3:12
8. 니스웨의 성문들이 원수들에게 넓게 열릴 것이다. 3:13



9. 포위될 것이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3:14
10. 불이 니느웨를 삼킬 것이다. 3:13,15
11. 아시리아의 대장들이나 백성 누구도 싸우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2:8,10, 3:13,17,18
12. 니느웨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3:19
13. 니느웨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스바냐 2:13~15

### 〈예언의 성취과정〉

아시리아가 제국을 이룬 것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거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내 손이 새 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듯 온 땅을 거두어 들었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이사야서 10:13,14)

하나님께서서는 아시리아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한 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언자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이사야서 10:12)

아시리아의 위대한 정복자 산헤립은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말합니다.



아시리아

이사야서 36장4, 5, 18~20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나?

5 내가 말하노라. 네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에 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나 (그것들은 헛된 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18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

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의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냐?

19 하맛과 아르밋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 내었느냐?

20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산헤립이 정복한 어떤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산헤립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져내지 못하였습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도 유다를 산헤립 자기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런 산헤립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37:6, 7, 33~38

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네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7 보라, 내가 그에게 돌뿔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33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34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5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36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37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38 그가 자기 신 니스룩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 예언은 곧 성취되었습니다.

돌풍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의 군대였으며 산헤립은 디르하가의 군대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 밤 사이에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명을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산헤립은 군사를 모두 잃고 돌아가 니느웨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산헤립은 왕위를 장남이 아닌 셋째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사가 장남은 못마땅하였습니다. 차남도 왕위가 둘째인 자신이 아니라 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장남 아드람멜렉과 차남 사레셀이 공모하여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하여 셋째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고대 근동의 패자(覇者)로 군림하였지만 피정복국가와 아시리아 주변의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바빌론과 이웃나라인 메디아와 스키타이가 연합하여 BC 614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공격하였습니다. 바빌론, 메디아, 스키타이의 연합군은 니느웨의 주변 도시들을 먼저 정복한 다음 니느웨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성

벽을 따라 2천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보병과 기병이 23m 높이의 성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하는데도 태평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안에는 오랫동안 버틸 양식과 물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아시리아 왕은 매일 술판을 벌였습니다.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한 지 3개월, BC 612년 아브(Ab)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4,5월에 해당하는 달로 이 지역에서는 비가 많은 계절입니다. 처음부터 니느웨는 지리적으로 비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혹은 세나케리브)은 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티그리스강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헤립은 성벽을 쌓을 때도 니느웨를 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성벽의 기초를 돌 위에 두었습니다. BC 612년, 운명의 그 해에는 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강둑을 넘고 세찬 물줄기가 니느웨 성벽을 강타하였습니다. 그토록 견고한 성벽의 한 부분이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성안의 누군가가 연합군에게 니느웨 성안은 모두 술에 취하여 있음을 알려주었고 연합군은 무너진 곳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니느웨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너무도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는 처첩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연합군에게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모두 죽여도 되며 모든 보물을 가져도 되다는 허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사자 같은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이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이나? 전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의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의 목을 조르며 또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

으로 채웠도다.”(나훔 2:11,12)

천하의 니느웨가 3개월 만에 멸망하다니! 이집트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점령하는 데 29년, 바빌론이 두로(티레)를 점령하는 데는 13년, 세계 최강의 바빌론 군대가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도 2년이 걸렸습니다. 이들 점령당한 어느 도시도 니느웨와 견줄만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설사 연합군이 우세하다고 해도 니느웨를 정복하려면 몇 십 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튼튼하였습니다. 그러한 니느웨가 3개월 만에 점령되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나훔 3:12절의 예언대로 마치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흔들면 떨어지듯이 니느웨는 너무 쉽게 적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니느웨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딱 한 가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피 흘리는 도시요,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살육당한 무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체가 있고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이 송장들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습니다(나훔 3:1~4). 이러한 니느웨의 횡포와 잔인함과 죄악들로 인하여 그들이 당할 수치와 비천하게 됨과 멸망을 대언자 나훔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네 젊은 사자(獅子)들을 칼로 삼키며 또 내가 네 먹이를 땅에서 끓으리니 네 사자(使者)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옷자락을 네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은 것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일 것이요,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을 구하리요? 하리라.”(나훔 2:13, 3:5~7)

니느웨의 죄악은 나훔이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기 약 150년 전에도 이미 컸습니다. 대언자 요나는 그 니느웨가 무너질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요나 3:4)



니느웨의 성벽

그러자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였습니다. 특히 니느웨 왕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내려 놓고는 굶은 베옷을 입고 재속에 앉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굶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요나3:8) 니느웨 전체가 죄를 회개하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는 두 개의 지명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한 곳은 ‘쿠윤지크(양떼)’이고 다른 한 곳은 ‘네비 유누스’라는 것입니다. ‘네비 유누스’는 ‘예언자 요나’라는 뜻입니다. 니느웨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 요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 〈니느웨〉

니느웨가 멸망하고 무려 2450년의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멸망하였으며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니느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겠지만 사막의 모래와 흙먼지가 말없이 니느웨를 덮어 잠재웠으며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갔고 새긴 신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며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스바냐 2:15) 라고 외치던 큰 도시 니느웨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느웨의 무덤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자신의 발아래에 니느웨가 잠들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성경과 아라비안나이트의 이야기 속이나 나오는 전설 속의 도시로 여기며 니느웨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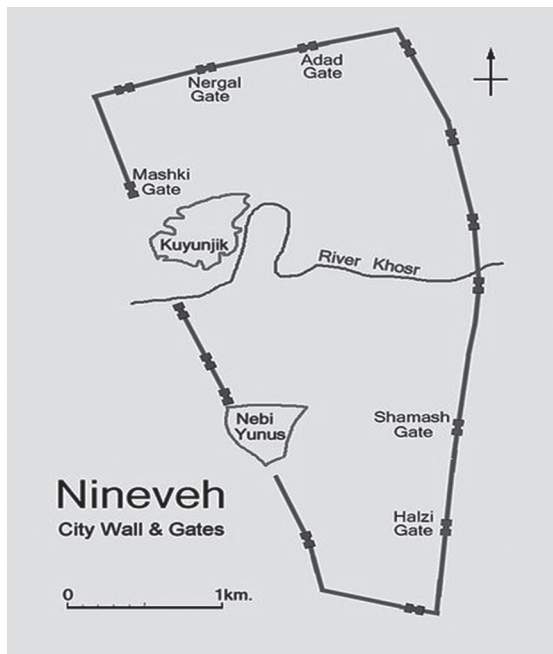


니느웨의 황량한 모습

니느웨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할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19세기 후반 프랑스인 에밀 보타와 영국인 레이어드에 의하여 니느웨가 두꺼운 재들과 화재로 검게 그을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스웨에는 거대한 왕궁 도서관이 있어 자신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점의 기록물들이 모래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니스웨가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니스웨는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사자후를 토합니다. 니스웨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치 니스웨는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사람들아, 이제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니스웨

아시리아의 미래에 대한 예언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

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의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이사야서 19:23~25)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 지 약 90년이 지난 BC 605년에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고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있고난 후 멸망하기까지 90년 동안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함께 하나님을 섬겼거나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길이 나고 서로 왕래하였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지배하여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시리아의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없으나 아시리아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바그다드에 약 100만 명, 북부에 20만 명, 남부에 수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약 4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현재 아랍권에 살고 있지만 아랍인들이 아니며 아랍의 종교인 이슬람 종교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경고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지금도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랍권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인들은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문제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을 도와 참전하였으며, 전쟁이 끝나면 자치를 약속받았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했는데 3분의 2가 죽임

을 당하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 있는 아시리아인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시리아는 지금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졌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남아 있는 아시리아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이렇습니다.

- 1)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큰 길이 생겨 서로 왕래할 것이다.
- 2) 아시리아인과 이집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 3)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다.
- 4) 심판 때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12:41

## 4

# 바빌론

바빌론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대 세계의 수도요 바빌론 제국의 머리이며 상업, 과학,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바빌론은 인간의 교만과 허영의 상징이 된 전설의 바벨탑과 공중 정원 같은 수많은 신비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바빌론의 역사와 크기와 영향과 중요성에 비해 그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바빌론에 대한 것을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많은 자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바빌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빌론의 생성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기원전 539년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의 사람이므로 빠르게는 160년 후의 바빌론을, 길게는 2천5백 년이 지난 후의 바빌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 시대를 살았으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BC 605년)가 된 초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다음은 바빌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17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19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20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도  
아니하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 우리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서 45장

1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  
지 못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5장

11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  
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12 주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  
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  
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50장

2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알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軍旗)를 세

우라. 널리 알리고 숨기지 말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탈취를 당하고 벨이 당황하며 므로닥이 산산조각 부서졌고 그녀의 우상들은 당황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부서졌다, 하라.

15 사방에서 그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 그녀가 자기 손을 주었도다. 그녀의 기초들은 무너졌으며 그녀의 성벽들은 허물어졌으니 그것은 주의 복수로다.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녀가 행한 대로 그녀에게 행할지어다.

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섬들의 들짐승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고 올빼미가 그 안에 거할 것이요, 그곳은 영원토록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대대로 그곳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서 51장

39 “그들의 열기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 〈예언과 성취〉

1. 바빌론은 은금을 귀히 여기지 않는 메대 사람들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서 13:17

고레스는 메대(Media 미디어)와 페르시아 군을 이끌고 바빌론을 공격하였습니다.

고레스(Cyrus 키루스 혹은 사이러스)는 더 큰 이득을 위해서는 재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포위한 지 단 14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고레스는 승리한 병사들에게 보

상하기 위하여 사르디스 성내로 들어가 그 유명한 리디아의 금은보화들을 마음껏 약탈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로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관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의 성격을 아셨던 것입니다.

## 2.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44:28, 45:1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주가 자신의 기쁨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BC 559~529년까지 메대-페르시아의 왕으로 재위하면서 BC 539년에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왕이 되기 약 160년 전인 BC 700년에 이미 그의 이름과 많은 민족들이 고레스에게 항복할 것이요 그가 제국을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습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고레스는 아시리아와 달리 각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여 그들의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칙령을 내려 포로가 되었던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3.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70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25:12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서 이후에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등 바빌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누구도 바빌론의 멸망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해도 그 시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예언대로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빌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 4. 바빌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예레미야서 50:15

바빌론의 성벽 둘레가 24km나 되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밑부분이 56.1m, 성벽의 높이 60m, 그 위에 다시 90m 높이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성벽은 2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서 역사상 바빌론과 같은 규모를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장안성도 바빌론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성벽의 바깥에는 빙 둘러 물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성벽에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고 접근한다 해도 성벽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바빌론은 크기와 견고함에서 단연 세계 최대요 최고입니다. 성벽을 쌓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나는 동쪽 바빌론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 나는 호를 구축하였고, 호와 성벽 사이의 경사면을 아스팔트와 벽돌로 조성하였으며, 그 물가를 따라 거대한 성벽을 산처럼 높이 구축하고 넓은 문을 만들어 구리 옷을



입힌 삼나무 문짝을 끼워 놓았다. 또 적이 사방으로부터 공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바다의 큰 물결과 같은 거센 물줄기로 이 땅을 감싸 놓았다. 그곳을 건넌다는 것은 큰 바다, 저 짜고 험한 바닷물을 건너는 것과 흡사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호를 건너 침입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높다란 독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벽돌을 쌓아 올렸다. 나는 이와 같이 능보를 교묘히 쌓아 올려 바빌론시를 요새화하였다.”

그러나 바빌론은 메대-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고 견고한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자랑인 견고한 바빌론의 성벽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바빌론의 한 가운데로 흐르는 강물을 돌리고 물이 얇아지면 군대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강물을 돌리기 위한 운하를 파았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잔치를 베풀며 술에 취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강물이 얇아지자 군대를 들여보냈습니다.

## 5. 바빌론은 잔치를 베풀고 술 취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51:39

바빌론의 멸망은 외부 보다 내부의 혼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가졌어도 내부에서 굶아 썩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는 섭정으로 아들 벨사살을 세워두고 10년 동안 아라비아의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바빌론을 공격해 올 때 벨사살은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들로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었습니다(다니엘서 5:1~4). 그들은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싸울 것도 없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빌

론은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함락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일 바빌론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50년 전에 바빌론이 잔치를 베풀고 술 취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언은 BC 539년 10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6.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50:39

“..... 그곳은 영원토록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대대로 그곳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이곳을 찾은 여행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들조차도 이곳에는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이 없으므로 목동들도 이곳은 아예 찾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장막을 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죽은 땅이었습니다.

## 7. 아름다운 바빌론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3:19,20, 예레미야서 25:12,

### 〈바빌론의 자랑〉

바빌론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고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나보폴라살이 옛 바빌론의 영광을 잇고자 BC 625년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여 바빌론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네부드카네자르, 재위 기간 BC 605~562년)의 뛰어난 통치력에 의하여 수도 바빌론은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매우 웅장하게 건설되었습니다. 바빌론

은 제국의 행정, 교육, 과학, 상업, 무역,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빌론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이사야서 14:4). 그들은 신들의 형상에 수 천톤의 금을 입혔습니다.



바빌론

바빌론은 지식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수학의 10진법과 60진법이 바빌론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원주율을 3(지금은 3.14)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천문학도 발달하여 목성의 위성이 4개가 있다는 것을 바빌론이 알았음이 대영 박물관에 있는 비문에 기록되어있는데 이 위성들은 육안으로는 결코 관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38년 어느 독일인 고고학자가 바그다드 근처의 유적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목 부분을 아스팔트 단지로 씌운 도자기 단지와 동으로 된 원통에 들어있는 철 막대기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GE사의 기술자가 이 장치를 복원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電池)였습니다. 이 장치의 발굴지 부근에는 전기 도금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유물이 몇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전기 도금의 지식을 갖고 있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사야서 13:19)이라고 하였습니

### 〈바빌론이 황폐하게 됨〉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였지만 그는 바빌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은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때 시민의 반란으로 성채와 신전이 파괴되고 마르둑 신상이 녹아내리기도 하였으나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그리고 아하수에게로 이어지는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4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Robert Koldewey)가 발굴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녀도 그들의 발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바빌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떻게 한 때 그렇게 높이 군림하던 영광의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대개는 도시가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오래 된 도시들은 옛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만큼 많은 전쟁과 파괴를 경험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은 어찌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수많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 예언되었지만 바빌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빌론의 황폐가 예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

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예레미야서 25:12)

## 〈예언의 성취〉

BC 331년 페르시아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는 바빌론이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제국의 수도로 삼고자 파괴된 신전과 부두를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 복구를 위해 군대까지 연 인원 60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황폐하게 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BC 323년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음으로써 바빌론은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있어났고 BC 312년 셀레우코스가 권력을 잡고,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새로운 수도로 셀레우키아를 건설하여 바빌론의 주민들을 셀레우키아로 이주시킴으로 산업 시설이나 상업적 관심이 바빌론에서 셀레우키아로 옮겨졌습니다. 이로써 바빌론의 지위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황폐화는 계속되었습니다. AD 363년 로마의 줄리안(Julian) 황제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와 전쟁을 하면서 바빌론 성벽이 적에게 이용되지 못하게 하려고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이후 파르티아 왕조에서 사산조 페르시아에 이르는 900년간 바빌론은 잊혀지고 버려졌습니다. AD 650년 이후 아랍이 이슬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바빌론은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빌론은 홍수의 범람으로 흙더미에 깔리고 묻혀져 갔습니다. 1899년 콜데마이가 바빌론을 발굴하고자 할 때 어떤 곳은 4~5미터 어떤 곳은 10미터, 20미

터도 더 깊이 파내려가야 할 만큼 바빌론은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황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상의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지금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도시. 이것이 바빌론의 운명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폐허

### 〈바빌론의 미래〉

바빌론은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으나 바빌론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98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자신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자칭하며 바빌론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벽돌에 “영광스런 이라크를 위하여 느부갓네살의 아들 사담 후세인에 의해 바빌론이 건설되었다.” 라는 글귀를 새겨 넣게 하였습니다. 걸프 전쟁 (Gulf War)이 끝났을 때 후세인은 옛 파괴 위에 수메르의 지구라트 모양

의 근대적인 궁을 짓기 원하였고 ‘사담의 언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2006년 4월에 유엔과 이라크의 지도자들은 바빌론을 회복할 계획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 바빌의 지방정부는 여행자들에게 유적지를 다시 개방했습니다.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서 누군가가 바빌론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가 바빌론을 재건하는 목적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의 머리가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바빌론은 전 세계의 종교 지식 경제 문화 예술 군사 과학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세계를 움직이는 머리오 수도가 될 것입니다. 건설자는 그 옛날의 느부갓네살 같은 능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워질 그 도시 바빌론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해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 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요한계시록 18:2,5, 21~23)

**\* 죽은 고레스가 살아 있는 알렉산더를 이기다.**

알렉산더는 고레스보다 200년 후에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재



위 BC 536~BC 529)는 바빌론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물을 돌리고 수위가 낮아진 강바닥을 통해 바빌론으로 진입하여 견고한 바빌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죽고 200년 후인 BC 330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하자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레스의 묘를 파헤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고레스의 묘 앞에 비문이 있음을 알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가에겐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

고레스는 어떻게 자기의 제국이 멸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였을 때 80이 훨씬 넘는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고레스 앞에 두루마리를 펼치며 말합니다. 고레스는 두루마리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미 160년 전에 예언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44:27, 28, 45:1~13

44:27 “깊음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45:1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늦 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 빗장을 꺾고

3 네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의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네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

13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고레스는 놀랍게도 자신의 전략,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제국 등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도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레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는 내 목자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고레스가 만났던 노인은 바로 어릴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었습니다(단 1:21). 다니엘은 또한 누군가가 고레스의 왕국을 이길 것이라는 다니엘서 2장의 내용도 함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넷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다니엘서 2:39)

첫 번째 ‘왕’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며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바로 고레스 자신의 왕국이며 ‘셋째로 또 다른 왕국’이 알렉산더의 왕국입니다. 고레스는 160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고레스의 무덤을 보호하고 그의 무덤에 자신의 덧옷을 벗어서 덮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레스의 무덤은 지금 이란의 파사르가데에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의 무덤

# 5

## 알렉산더 대왕 (재위 BC 336~BC 323)

다니엘이 BC 553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명백히 그를 언급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39,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낯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다니엘서 8:1~8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삼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 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올래 강가에 있었노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견져 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더라.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숫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격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숫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숫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숫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 낼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다니엘서 8:20~22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다니엘서 11:1~4

“또 내가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일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보여 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의 영토를 치리라.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 1) 그리스 왕이다.
- 2) 서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 3) 첫째 왕
- 4) 숫양 페르시아를 이길 것이다.
- 5) 그의 후에는 네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권세가 첫째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 6) 큰 통치 권세를 가질 것이다.
- 7) 그의 왕국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아버지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왕국 마케도니아는 아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의 도시들을 연합한 헬라스 동맹(혹은 코린도 동맹)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의 패권국가인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와 싸워 그를 이김으로써 페르시아, 이집트, 시리아, 인도의 북서부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동쪽에서 일어났으므로 그들의 정복 방향은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밀어붙이는 숫양입니다. 서쪽에서 일어난 알렉산더는 그 숫양을 이기는 숫염소입니다.

알렉산더가 강한 왕으로 큰 통치를 가지고 다스렸으나, 열병을 얻어 BC 323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바빌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왕국은 그의 네 부하들에 의하여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권력 암투로 알렉산더의 가족들이 차례로 암살당하여 모두 희생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그리스 제국은 부하들

에 의해 마케도니아, 시리아, 소아시아(트라키아), 이집트의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으며 그들의 어느 나라도 이전의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에 미치지 는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는 명백히 하나님에 의하여 예언된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 6 이 세상

고레스의 메대-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이후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니엘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8장에서는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BC 600년 이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 다니엘서 2장

28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 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리 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29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 주시나이다.

30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31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대,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32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 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35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 〈꿈의 해석〉

36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37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38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이니이다.

39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41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42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45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 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 → 은 → 동 → 철 → 쇠+진흙.

가치가 못한 왕국으로 바뀌어 갑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빌론은 BC 539년 메대(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빌론 왕국보다 못한 은에 해당하는 두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330년 놋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연합군을 이끄는 알

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합니다. 쏿 왕국 그리스는 페르시아보다 못한 왕국입니다. 철의 왕국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등장하면서 천하는 BC 100년에 로마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철의 왕국 로마는 말 그대로 철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로마의 중무장한 철갑병은 당시의 모든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어떤 전략 전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쇠 갑옷, 무거운 쇠 방패, 긴 창으로 무장한 로마의 군대가 진군하면 천지가 진동하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로마는 형상의 두 다리에 해당하는데 로마는 AD 285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뉩니다.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끝납니다. 동로마는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열 발가락 시대는 EU가 될 것입니다. 현재 EU가 정치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종교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탈퇴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EU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나라 수가 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쇠와 진흙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쇠는 강하지만 진흙은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진흙은 사람들의 씨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쇠는 사람들의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와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추구한 낫선 육체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낫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다서 7절)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킬 것입니다(유다서 10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맞추는 기기들이 생겨나겠지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대는 신성모독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할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세상은 점점 퇴보하여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은 사라지고 가망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국을 끝내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

### 8장

1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삼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2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올래 강가에 있었노라.

3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낫더라.

4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견저 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5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

러진 뿔이 있더라.

6 그가 두 뿔 달린 숫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격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7 내가 보니 그가 그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숫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숫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숫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 낼 자가 없었더라. 8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9 그 뿔들 중의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11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12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

16 또 내가 올래 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17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를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이,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18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19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격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려 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 〈환상의 해석〉

20 “네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21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 이니라.

22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23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24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26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닮아 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8장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 21세기에서 본 예언의 과거 성취 2장 3~8절, 20~22절

숫양은 메대(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강합니다. 페르시아는 동쪽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정복방향은 서쪽의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과 북쪽의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그리고 남쪽의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됩니다. BC560년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합니다(4절).

이번에는 숫양을 이기는 숫염소가 서쪽에서 등장합니다(5절). 숫염소는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21). 알렉산더는 BC 330년 마케도니아 군과 그리스 군을 이끌고 숫양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이기고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6,7절). 알렉산더의 사후 그의 제국은 4 부하에 의해 4분 되었는데 마케도니아와 그 서부, 시리아와 그 동부, 이집트와 그 남부, 그리고 소아시아의 트라키아와 그 북부 지역입니다.

### 21세기에서 본 예언의 미래 2장 9~12절, 23~26절

여기서의 미래는 우리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예언입니다. 23~26절의 예언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는 이래로 2500년이 넘는 많은 날이 지나간 때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은 우리에게서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왕국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지막 때는 범법자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우리는 다른 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범법자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뉴스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범법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살인, 강도, 강간, 음행, 성매매, 사기, 도둑, 폭력, 테러, 속임, 부정, 뇌물, 거짓,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모든 범법자들의 소식을 다 전하려면 뉴스 매체가 수백 개가 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범법자들이 가득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앞에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는 천재의 반열에 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추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이 어떤 것보다 권위가 있고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형통할 것이고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며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사나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형통함에는 끝이 없어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는 정복하고 또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력을 키우는 때는 지극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극히 높일 것입니다.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니”**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동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00년 대 초에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단일 종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때에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통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의 입에 발린 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평화’입니다. 세상은 점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며 갈등으로 인해 결국 테러, 분쟁, 폭동, 전쟁,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는 매일 이런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할 것인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평화에 목말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아무리 갈망해도 세상은 날로 더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때에 야망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평화’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에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주장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의 평화론을 반박한다면 그는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사실 그의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으로는 연신 평화를 외치지만 손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얼마는 환난이 있기 전에 하늘로 채여 올라갈 것입니다. 남은 70억의 2분의 1이 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인데 먼저 인구의 1/4이 흰말 탄 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요한계시록 6:8) 나머지의 1/3이 또 죽을 것입니다(요한계시록 9:15~18). 히틀러, 폴포트 같은 수백만 명의 학살자들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므로 그를 ‘적그리스도’(anti-christ)’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잔악무도한 권력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세상왕국을 꿈꾸며 시작한 그의 날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의 멸망과 함께 7년 만에 끝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지극히 두려운 미래가 아주 가까운 날 아무도 예기치 않은 날에 전개될 것입니다.



# 7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이후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받은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받았던 고난을 그들은 190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북이 되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설움을 겪었습니다. 중세기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쓰러지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정결한 의식으로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 가는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흑사병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없으므로 유대인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누명을 써서, 유대인이 모여 사는 도시와 마을이 전멸 당하고 몰살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러시아 등등 거주하고 있던 나라에서 어느 때이건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면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힘써 일구어 놓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살아서 쫓겨나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쫓겨난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받아줄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당하게 핍박을 받아도 누구하나 그들의 편이 되어줄 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핍박의 절정은 불과 7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2차 세

계대전 중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따라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으며 드디어 1948년 독립하여 자기들의 옛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며 산다면 모르긴 해도 3대만 지나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생김새만 한국인이지만 생각과 사고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나라가 살기 좋고 환경이 좋든지 그들은 철저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900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돌아갈 땅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한 것과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자신의 땅을 되찾아 독립 국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우리와 다른 인종이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우리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 민족 수백만 명이 가스실로 끌려들어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독이같이 일어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운명이 모두 오래 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예언하였을까요?

## 〈예언과 성취〉

1.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25:11,12

11 “그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12 주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집트의 파라오느고는 BC 609년 팽창하는 바빌론을 저지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도와 바빌론을 치려고 군대를 끌고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예레미야서 46:2). 그러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유다를 지나야 합니다. 느고는 유다 왕 요시야에게 길을 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시야는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아시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약 130년 전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후로 남쪽의 유다를 지배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이집트의 군대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끌고 므깃도(아마겟돈)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대패하고 요시야 왕은 전사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시야를 대신하여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3개월 통치함). 파라오느고는 군대를 계속 진군하여 바빌론을 막는 데 일단은 성공합니다(4년 뒤에 바빌론의 군대에게 대패함). 파라오느고는 이집트 군대를 갈그미스에 주둔시키고, 자신은 일부를 거느리고 이집트로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요아스의 아들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파라오느고에게 조공으로 금 1달란트(34kg)와 은 100달란트(3400kg)를 바쳐야 했습니다. 유다가 친(親)이집트로 돌아서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이집트를 응징하기 위해 이듬해 BC 608년에 침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예레미야서 25:17~26)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BC 539년 바빌론은 메대-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아시리아와 달리 민족들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민족들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인물로 자처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왕으로 즉위하던 원년(BC 536년)에 유다(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역대기하 36:22,23)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온 BC 536년(고레스의 제일년)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BC 605년으로부터 정확히 70년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인데도 고레스가 등장하기 16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나올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여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과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없이 풀어줄 것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것입

니다.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이사야서 44:28)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45:1,13)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경작하되 6년을 경작하고 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육 년 동안 네 밭에서 씨를 뿌리며 육 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 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거나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레위기 25:3~5)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은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먹을 것을 그 전 해에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아니하면 7배를 갚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

라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레위기 26:21)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어긴 것의 7배로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레위기 26:34,35)

이스라엘은 10 번의 안식년을 어겼고, 땅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가 된 70년 동안 안식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칠십 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역대기하 36:21)

## 2.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일 것이다.

이사야서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니엘서 9: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 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사야는 메시아(예수 그리스도)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때 이 예언을 하였으므로 약 530년 전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 3.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누가복음 21:5,6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로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약 36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의 병사들은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이 돌에 녹아내리자 병사들이 돌에 녹아 붙은 금을 떼려고 돌 하나하나를 다 들어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 4.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기까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무려 1900여 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까마득한 옛날 고조선 시대에 나라를 잃고는 20세기에 와서야 독립을 한 것입니다. 오직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여러 사람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에스겔서 36:24)

－ 에스겔은 BC 560년경의 사람이므로 독립하기 2510년 전의 예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이사야서 43:5~7)

- 이사야는 BC 700년 때의 사람이므로 독립하기 265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7세기에 쇠망하자 아랍의 회교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여 1300여 년을 지배하였습니다. 1883년 프랑스 특파원으로 있던 언론인 데오도르 헤르츨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주창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곳으로(사무엘기하 5:7)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편 137:1)

하지만 2천여 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떠나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령 생각하고 있었다 해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시온으로 돌아갈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도움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을 잊었습니다.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이사야서 49: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야서 49:15)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잊고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테오도르 헤르츨입니다. 테오도르 헤르츨은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은 완전히 잊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4년 프랑스에서 일명 ‘드레퓔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프레드 드레퓔스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프랑스에서 자라고 군사학교를 졸업하여 프랑스의 포병 장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포병은 군대의 새로운 개념이었으며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프랑스 포병부대의 상세한 군사정보가 독일군에게 넘어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군 수뇌부는 패전의 책임을 둘러썬을 희생양으로 유대인인 알프레드 드레퓔스 대위를 지목하고 포병정보를 독일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그에게 무기유배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드레퓔스의 혐의를 밝힐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스파이 암호가 드레퓔스 이름의 머리글자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언론에서 드레퓔스의 무죄와 그 증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커다란 편견과 증오로 가득 찬 프랑스는 드레퓔스의 그 어떤 무죄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드레퓔스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드레퓔스는 악마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의 군사기밀을 독일에게 넘긴 사람이 다른 장교였음이 드러나 드레퓔스는 석방됩니다. ‘드레퓔스 사건’은 당시 유대인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언론사의 파리 특파원이었던 데오도르 헤르츨은 어느 날 거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육군 장교복을 입고 쓰러진 젊은이를 둘러싸고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쓰러진 젊은이가 소리 쳤습니다.

“내 아버지의 조국은 프랑스입니다!

내 조국은 프랑스입니다!

내 아들의 조국도 프랑스입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 그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더러운 유대인일 뿐이야.”

헤르츨은 유대인이 그 나라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나라의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독일에 사는 유대인도 유대인이요,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도 유대인이요, 영국에 사는 유대인도 유대인이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도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헤르츨은 유대인들이 각국의 학대와 학살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땅 시온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헤르츨은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쓰게 되고 1897년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오니즘에 불을 붙인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전쟁이 끝나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아의 선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의 수는 1914년에 9만 명, 1925년에는 10만 8천 명, 1933년에는 23만 8천 명이었습니다. 1948년 독립 시에는 806,000 명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동쪽의 이라크로부터, 서쪽의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북쪽의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남쪽의 예멘과 에디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집트 등 사방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각국에서의 유대인 이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2011년 5월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755만 명이고 이중 유대인은 586만 명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들의 생각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돌아올 것과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BC 500년경에 쓰여진 예언입니다.

시편 107:2~16

2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3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5 주리고 목마르매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6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9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 10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 11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 12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  
    어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 13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  
    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 14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 15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 16 그분께서 늦 문들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들을 끊으셨도다.”

##### 5. 예루살렘의 동문(East Gate)이 닫힐 것이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에스겔서 43:1,2)

“그때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 길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닫혀 있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통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가고 같은 것의 길로 나가리라, 하시더라.”(에스겔서 44:1~3)

동문(혹은 황금 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출입문입니다. 열한 개의 문들 중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도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동문의 맞은편에 감람산(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동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근거는 올리브 산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동문이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마태복음 21:12~16) 동문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무엇보다 에스겔은 44:3에서 예언하기를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통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 문의 주랑길로 들어가고 같은 것의 길로 나가리라, 하시더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문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닫힌 것입니다.



올리브 산을 향한 동문



2천 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1541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술레이만 1세는 이 유대인의 문을 두려워하여 메시아가 오면 열릴 것이라는 대언자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동문을 벽돌과 모르타르로 완전히 폐쇄해버렸습니다.

아랍이 에스겔의 예언을 막기 위한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므로 무덤을 스치지 않고는 아무도 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문 앞에 아랍인들의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현재 동문 앞에는 메시아의 길을 막기 위한 회교도의 무덤과 부활을 기다리는 유대인의 무덤과 기독교인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메시아께서 올리브 산을 통해 동문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벽돌로 굳게 닫힌 동문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터키, 영국, 십자군, 아랍, 유대인 등 10여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도 동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967년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동문을 열고 바위 사원에서 기도할 계획이었으나 6일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는 술레이만 1세의 계획이나, 동문으로 들어가려는 인간의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문은 통치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오늘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 6.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신명기 11:9)

1973년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 골다 메이어 총리(1898년~1978년)는 이스라엘을 찾은 당시 서독의 빌리브란트 총리에게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게 불만이 조금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오일 쇼크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니다. 이스라엘이 해외에서 유전을 개발하려고 하면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 나라에 석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거나 교역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니 해외 유전개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 비교적 덜 적대적인 이집트나 유럽 등에서 국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오일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2008~2010년 사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오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시펠 분지만 해도 2500억 배럴(1배럴은 158.9L)의 셰일 오일이 매장되어 있음이 2008년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이 2600억 배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단숨에 제 2의 산유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셰일가스도 120년 사용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명실상부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 7. 이스라엘의 미래

### 1)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끝없는 전쟁에 서로가 지칠 것입니다. 평화는 서로의 희망사항이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물과 봉헌물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조건으로 7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 중재자가 미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중재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의 중재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랍은 미국이 친이스라엘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나 아랍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제 3의 중재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였던 10 발가락 시대에 해당하는 EU가 될 것입니다.

### 2) 평화협정은 정확히 3년 반이 지나면 깨질 것이다.

평화협정을 맺은 지 정확히 42개월(3년 반)이 지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협정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협정 위반으로 이스라엘이 맺었던 협정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물과 헌물을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걱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다니엘서 9:27)

한 이레는 일주일 즉 7일로서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7년을 말합니다(민수기 14:34, 에스겔서 4:6). 이레의 한 중간이므로 3일 반 → 3년 반

(42달)이 됩니다.

### 3)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1900년 동안의 고난 끝에 돌아왔으나 그들의 고난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 약 255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다니엘서 12:1)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고난은 그들이 많은 민족들의 노략물이 될 것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스가랴 14:1,2)

이 고난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2/3가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8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하자원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근 발견된 대규모 지하자원은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모두가 탐내는 노략물이 될 것입니다. 자원 문제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든 민족들이 동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동쪽에서 여러 왕들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문제라면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의 회교국들만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자원이라면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그 엄청난 양의 자원분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군대를 많이 보내면 그만큼 많이 분배받을 것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적으로 군대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추악한 탐욕에서 빚어진 전쟁이며 전쟁의 결과는 연합군의 전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스가랴 14:12~15; 마태복음 25:41~45).

환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이며 도피처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며 광야의 도피처는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1260 일, 즉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 여자(이스라엘을 말함)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다.”(요한계시록 12:6)

#### 4) 이스라엘이 환난으로 인해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호세

아 5:15)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스가랴 14:3)

이스라엘은 고난(환난)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호세아 6:1) 고난이 비록 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출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11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흡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 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별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 5)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큰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큰 나라이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섬김을 받는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장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 없이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스가랴 14:16~19)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인구가 많거나 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율법과 같은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신명기 4:5~8)

그러면 지금은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도(로마서 9:4,5)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아닐까요? 왜 모든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때 그들은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과거와 받아들이는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날에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가

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0:12~16

12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폐허하게 되리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나무가 함께 네게 이르러 네 성소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리니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14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네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 6)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예레미야서 33:15,1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26,27)

\* 이스라엘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환난에서 남은 자들 모두가 회개하여 죄가 없게 될 것이며 모두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 7)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12:3)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과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함으로써 전쟁에서 패하였고 많은 도시들이 폭격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 72년 동안 유대인을 박해함으로써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과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라크는 패배하였고 사기가 꺾였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H.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사이에 일어난 대형 재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 미국 역대 보험 통계상 가장 큰 비용을 치른 참사 10개 중 9개

\* 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7개 중 6개

\* 미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 4개 중 3개

\* 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자연재해 10개 중 9개

\* 미 역사상 가장 큰 두 개의 테러 사건

이 일들이 일어난 것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조건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어떤 조건을 요구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발표를 하고난 당일 혹은 2~3일 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통계학상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을 강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조건으로 땅을 양보하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사 과거에 이스라엘을 많이 지지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EYE to EYE: Facing the Consequences of Dividing Israel>

한 나라가 안전하게 지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잘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마태복음 25:31~46).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민수기 23:8, 22,23)



## 8)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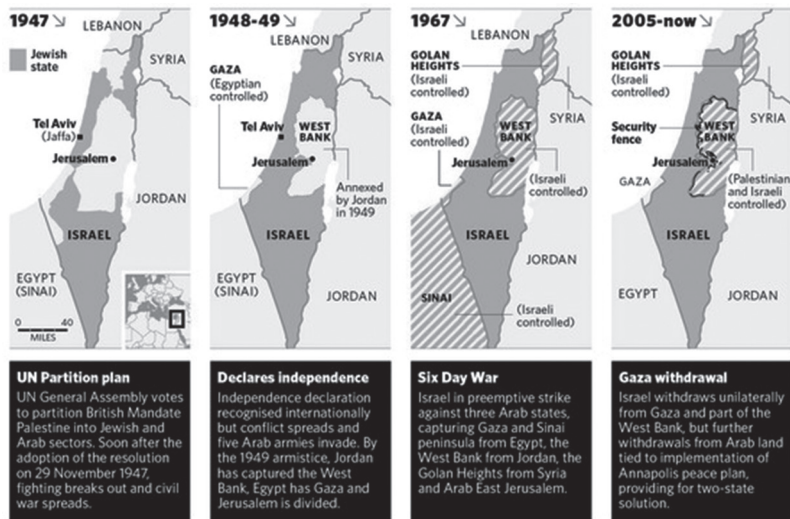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과거 2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7년 대환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니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이사야서 25:9)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네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네 왕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시편 89:3,4)

## 9) 이스라엘의 영토

과거 네 차례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으나 아직 약속의 크기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토는 서쪽으로는 이집트의 나일 강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현재보다 훨씬 넓은 영토입니다.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18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Sourc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Arab-Israeli Conflict, Israel: A History, The Question of Palestine and Graphic News

네 차례 전쟁과 영토의 확장

## 10)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동쪽의 많은 나라들이 자그마치 2억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싸우심으로 2억의 군대는 전멸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16, 16:12,16)

# 8

##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주 전)와 AD(주 후)를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즉 ‘history(his+story)’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천 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길게는 출생하기 4천 년 전부터 짧게는 500년 전까지 그분의 출생과 인격과 사역과 생애와 죽음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역사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철학자, 사상가, 지도자, 선생, 작가, 화가, 음악가, 무슨 스타 …… .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성취된 예언〉

#### 1) 여자의 씨가 될 것이다. 창세기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취** - 마태복음 1:1,2 ..... 15,16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 시니라.”

\* 사람은 여자의 씨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23) 예수님은 BC 4 천 년 전에 여자의 씨가 되실 것이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여자(마리아)의 씨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 2)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가 될 것이다. 창세기 15:5, 22:17,18

창세기 15:5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22:17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

닷가의 모래같이 변성하게 하고 변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22:18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성취** - 갈라디아서 3:16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 3) 유다지파에서 날 것이다. 창세기 49:10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성취** - 마태복음 1:3 ..... 16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  
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 야곱의 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됩니다. 유다는 야곱  
의 넷째 아들입니다.

### 4) 다윗의 집에서 날 것이다. 예레미야서 23:5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를 일으킬 것ियो,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  
를 집행하리라.”

성취 - 마태복음 1: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로마서 1: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 5) 베들레헬에서 출생할 것이다. 미가서 5:2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성취 - 마태복음 2:1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시매,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임신하여 만삭이였습니다(누가복음 2:5,6). 마리아가 출산하기 위해 베들레헬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모든 속국에 조세등록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누가복음 2:1).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는 조세등록을 하기 위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20km입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헬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으므로(요한복음 4:9) 먼 길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도 사마리아를 피해 우회하였다면, 그 거리는 적어도 150~180km는 되었을 것입니다. 험한 지형에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베들레헬에 올라감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누가복음 2:4).

6)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 - 마태복음 1:18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뱌 것이 드러나매”

1: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7)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시편 2:7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취** - 누가복음 1:34,35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8) 그의 출생지에서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31:15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취 - 마태복음 2:16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 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헬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 9) 한 동안 이집트에 있게 될 것이다. 호세아 11:1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성취 - 마태복음 2:14,15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 10)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40: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길을 곧게 만들라.”

성취 - 마가복음 1:2~5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



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 요한은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인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끝 수 없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마태복음 3:11,12).

#### 11) 갈릴리가 큰 빛을 볼 것이다. 이사야서 9:1,2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성취** - 마태복음 4:12~14 “이제 예수님께서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갈릴리 지역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디베랴, 가나, 나인

등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두로와 시돈이 가까우므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경멸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요한복음 1:46)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요한복음 7:52)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받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 12)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서 35:5,6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 성취 – 마태복음 4:23

23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 13)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시편 110:4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취** - 히브리서 6:20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5:5,6, 7:15~17)

#### 14)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61:1,2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성취** - 누가복음 4: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 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고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인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1~4

1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

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 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3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 15) 비유로 가르칠 것이다. 시편 78:2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성취 - 마 13:34,35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 “하늘의 왕국은 마치 ~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과 같으니.” 이처럼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 16) 많은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이사야서 42:7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 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 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취 - 마태복음 8:16,17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 주시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17) 사람들은 그의 기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53: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취 - 요한복음 12:37,38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18) 대언자가 될 것이다. 신명기 18:18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성취 - 요한복음 12: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혹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언자의 첫째 조건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언자의 두 번째 조건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자기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 즉 무당이나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하셨으므로 대언자이십니다.

### 19)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스가랴 9:9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성취 - 요한복음 12:12~15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 20)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속임수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53:9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성취 -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을 함께 지내며 따라 다녔고 그분이

잡히시던 밤까지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베드로전서 2:22,23)

## 21) 친구에 의해 배신당할 것이다.

시편 41:9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시편 55:12~14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 성취 – 마태복음 26:47~50

47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8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49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22) 은 30개에 팔릴 것이고 그 은 30개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질 것이다. 스가랴 11:12,13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서른 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서른 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취 - 마태복음 26:14,15 “그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 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성취 - 마태복음 27:3~6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피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이 날까지 그 밭을 피 밭이라 하느니라.”

\* 은 서른 개는 당시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32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삼십 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 세겔은 30일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종의 몸값에 팔린 것입니다. 배신자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런 가치였습니다.

### 23) 그의 양들(제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스가랴 13:7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 성취 – 마태복음 26:33

33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35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 24) 거짓 증거로 고소당할 것이다. 시편 35:11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 성취 – 마태복음 26장

59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60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61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님께서서 잠잠하시거늘.....”

## 25) 고소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53:7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성취 – 마태복음 27장

12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13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 26)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53:8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성취** - 마태복음 27장 15~26절

15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16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19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 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20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21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거늘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라?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23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24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25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26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 27)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50:5,6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성취 - 마태복음 26:67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 28)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시편 69: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는 자들이 강하므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주었나이다.”

성취 - 요한복음 15:23~25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29)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거부될 것이다. 이사야서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취 - 요한복음 1: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30) 범법자로 여겨질 것이다. 이사야서 53:12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성취 - 마태복음 27:37,38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31) 손과 발이 못 박힐 것이다. 시편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

성취 - 요한복음 19:18, 20:25~27

18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24 “그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6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32)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3:12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성취 - 누가복음 23:34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

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 33)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53:11,12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성취** -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 34)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53:11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성취** - 로마서 3:22~26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

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5:19 “한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 35) 버림받음으로 인해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시편 22:1,2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성취 - 마태복음 27:46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 36) 식초를 마시도록 주어질 것이다. 시편 69:21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성취 - 마태복음 27:34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 37) 70이레 중 69이레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다니엘서 9:24~26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취** – 마태복음 20: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70이레의 예언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예언의 시간은 7이레와 62이레와 한 이레로 나누어집니다. 한 이레는 7일이고 하루는 1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민수기 14:34, 에스겔서 4:6).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483년(69이레=69×7=483)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한 이레(7년)의 예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예언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38) 그의 겹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을 것이다. 시편 22:18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성취 - 요한복음 19:23,24 “그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겹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겹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겹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39) 정오에 온 땅이 어둡게 될 것이다. 아모스 8:9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성취 - 마태복음 27:45 “이제 여섯 시(낮 12시)부터 아홉 시(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40)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이다. 스가랴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성취 - 요한복음 19:32~34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

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의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확인한 병사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일종의 확인 처형입니다.

#### 41)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34:20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매 그것들 중의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 성취 - 요한복음 19:30~36

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31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 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32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33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러나 군사들 중의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 십자가 형을 받아 죽은 자들의 뼈를 꺾는 것은 혹시라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 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음에도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로마 병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언을 실행하였습니다.

#### 42) 부자의 묘에 묻힐 것이다. 이사야서 53:9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성취 - 마태복음 27:57~60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 43)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시편 16:10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성취 - 누가복음 24:39~47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 44)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시편 68: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성취 - 누가복음 24:51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 45) 이방인들이 그분을 믿을 것이다. 이사야서 42:6,7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

어 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취** - 마태복음 12:20,21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46)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다니엘서 9: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취**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 37년 후인 AD 70년 에 로마의 장군(황제가 됨)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2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47)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다.** 시편 110:1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취** - 히브리서 1: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 48) 그분의 통치권이 온 땅에 미칠 것이다.

시편 72:8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다니엘서 7:14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성취** - 빌립보서 2:9~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50) 목자가 될 것이다. 시편 23:1~6

1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4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취** - 요한복음 10:11~17

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 목자가 아닌 삯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13 삯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15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6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들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 이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다.”

**51)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스가랴 6:12,13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



이 가지(The BRANCH)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성취** – 요한복음 2:18~22

18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0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 성전(聖殿)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건물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21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건축할 성전은 모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신의 몸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고린전서 3:16,17; 6:19,20)

##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 1)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사야서 9:7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궁핍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사무엘기하 7:12~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부하므로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왕으로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날,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이사야서 9:7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 2)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다니엘서 2:44절, 7:27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왕국에서는 땅의 저주가 풀리고 육식 동물은 원래대로 초식 동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6~9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뎌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금은 땅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그치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19~21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피조물의 이러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위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니엘서 2: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 3) 평화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이사야서 9:6

세상에는 늘 폭탄테러, 분쟁, 전쟁, 기근, 재난, 시위, 폭동, 다툼과 증오와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유엔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분쟁을 중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분쟁과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 평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큰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세상은 마지막까지 전쟁에 휘말리고 그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다니엘서 8:25)

그는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자신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나서지만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올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에게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에는 살육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1/2이 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먼저 1/4이 죽임을 당하고(요한계시록 6:8), 나중에 나머지의 1/3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9:15).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명입니다. 35억 명이 7년 새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땅에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peace)’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2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my peace)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9:6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다시 오실 것이다. 호세아 6:2

2천 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죄를 지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며 그들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2천 년 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4:13~17

13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세아 6:2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 ‘이틀 뒤’의 이틀은 2천년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지 2천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에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곡식으로 치면 다 익었고 이제 농부가 언제든지 낱씨와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 수확 할 상황입니다.

#### 5)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스바냐 1:14~18절, 요엘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의도들을 드러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양의 민족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나 염소로 분리된 민족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은 죄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 1:14~18

14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15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16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

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다.

18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 6)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44:1~3

예루살렘 성벽의 동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출입하셨으나 그 이후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많은 세상의 왕들이나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한 왕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통치자로 오실 것이고 굳게 잠긴 그 문은 통치자를 위해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 길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닫혀 있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통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가고 같은 것의 길로 나가리라. 하시더라.”

#### 7.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15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뱀(=마귀=사탄=용)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뱀의 머리가 상한 것

은 아닙니다. 머리가 상하면 그는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므로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 때에 적그리스도는 잡혀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옛 뱀은 바닥없는 구렁이에 천년 동안 갇힐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은 마귀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9

## 사탄 (= 마귀, 옛 뱀, 큰 용)

창세기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예언의 내용〉

- 1)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이 있을 것이다.
- 2) 그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 3)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6천 년 전 뱀(serpent = 옛 뱀 = 사탄 = 큰 용 = 마귀, 요한계시록 12:9)이 이브에게 거짓말로 속여,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여 죄를 짓고 죽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한 예언입니다. 옛 뱀의 운명은 여자의 씨인 ‘그 씨’에 의해서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25:41). 옛 뱀 즉 사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씨”가 여자에게서 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지파 다윗의 집안이며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뱀은 자신에게 선포된 비참한 운명을 막기 위해 ‘그 씨’가 오는 통로를 막고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피비린내가 6

천 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개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의 수단은 악한 왕이기도 하고 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의 온 나라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간교한 방법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방해합니다. 세상에 이 예언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킨 예언은 없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까지 마귀의 광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 〈예언의 성취〉

### 1)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8

6천 년 전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 중에서 가져온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온 동생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들에서 죽였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요한복음 8:44)

### 2) ‘그 씨’가 오지 못하도록 땅위의 사람들의 씨를 부패하게 합니다. 창세기 6:2,4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루시퍼의 편에 섰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사람이 아닌 거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씨가 부패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을 멸하시려고 땅위에 홍수를 내렸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 3)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씨를 혼잡케 하려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파라오가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사라를 안전하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사라를 빼앗도록 한 것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였습니다.

### 4) 사라는 남편이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의 나이 84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사라에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남편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도록 제안하여 아브라함은 85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오늘날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 6) 르우벤이 장남의 자격을 상실하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장남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우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로 인해 르우벤은 장남의 자격을 상실합니다(창세기 35:22, 49:3,4). 이러한 악한 행위는 진멸되어야 할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였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레위기 18:8)르우벤의 타락 뒤에는 마귀의 작용이 있습니다(에베소서 2:2).

**7) 파라오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강물에 던져 죽게 하였습니다.**

마귀의 사악한 계략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씨를 없애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아이들이 이집트의 강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이로 인하여 슬픔을 겪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에 띄워 보내었는데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모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리일으킨 자는 살인자 마귀입니다.

**8)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겪고 손을 든 파라오였지만 하루아침에 남자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커다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마귀가 파라오에게 노동력을 눈뜨고 놓치겠느냐고 바람을 불리일으킨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장 60만 명의 노동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는 10 가지 재앙으로 혼이 나고도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 9)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지겨웠습니다. 그러자 옛날 이집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빵과 고기, 수박, 오이, 부추, 양파,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3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완전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불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 10)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출애굽기 20:3~5).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여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 11)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하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전쟁에 나간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혹해 그녀를 불러 간음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가 임신하자 남편이 없을 때에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

리아는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쉴 수 없다 하여 다윗의 계획이 수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사악한 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다윗의 정욕을 충동질하여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와 간음하게 한 것입니다. 나단 대언자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하여 비유로 설교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양을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가 죽어 마땅함을 정죄한 것입니다. 마귀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죽게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석에서 회개하여 죽음을 피하였으나 이 일로 인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사무엘기하 12:1~14).

둘째는 마귀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인 밋세바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밋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었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었다면 약속의 ‘그 씨’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선언하셨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도록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 12) 아달라가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다. 사무엘기하 11:1

남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북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열왕기하 9:27).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고 자신이 유다를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달라가 왕가의 씨를 멸할 때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자신의 침실에 숨겼습니다.

마귀가 아달라로 하여금 왕가의 씨를 멸하고 그녀 자신이 통치하도록 권력욕을 부추겼습니다.

### 13)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다.

누가복음 2:1~7

1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2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3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5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

6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7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BC 4년 로마황제가 온 세상에 조세등록을 명령한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일이 임박한 만삭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이를 죽게 하려고 로마황제를 부추긴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조세 수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황제의 필요를 자극한 것입니다. 사

실 마귀는 황제의 조세 수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그 씨’가 오는 것을 막을까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었는데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만삭의 몸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걸어서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뱃속의 아이나 엄마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 14) 베들레헴과 인근의 아이들을 죽이다. 마태복음 2:16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마귀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귀는 헤롯의 광기를 잘 이용하였습니다. 마귀는 헤롯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왕이 그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헤롯이 더 잘 알아서 처리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계시로 살육이 있기 전에 이집트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 15) 예수님을 시험하다. 마태복음 4:1~11

예수님께서 ‘그 씨’가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죄를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먹는 것과 명예욕과 보는 것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4천 년 전 첫 아담에게는 성공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으나 이겨내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 16)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삼키려 하다. 마태복음 8:23~27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고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든 사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를 삼키려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서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이 자연스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람과 바다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창조자가 아닌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여 창조자를 삼키려 하므로 예수님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꾸짖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마귀(또는 사탄)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실증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욥기 1:13~19). 마귀는 예수님께서서 주무실 때 바람과 바다에게 큰 폭풍이 일게 하여 예수님을 삼키려 한 것입니다.

#### 17)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사탄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1~23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 18)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다.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칼로 세상을 이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50~5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 19)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요한복음 6:70,71)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사탄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때에 열들의 수에 포함된 가롯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므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누가복음 22:3~6)

## 20) “너(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드디어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결정적인 상해가 되지 못하고 극히 미미한 타격입니다. 마귀의 승리는 3일에 불과했습니다.

## 21)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영적인 면에서)

마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씨’인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빌라도와 많은 유대인들과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이용하여 온갖 간계를 꾸미고 고소할 거리를 찾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히브리서 2:14), 죽음은 마귀가 가진 가장 무서운 권능입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로마서 5:21). 마귀는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의 권능 아래 잡아두고자 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음에 내 주신 것 뿐입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17,18)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창시자이시므로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로마서 6:9) 사망을 폐하셨습니다(디모데후서 2:10).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14,15)

이제 죽음은 십자가 안에서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골로새서 2:14,1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고린도전서 15:55~58)

예언대로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으므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56페이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맞는 말

예언은 단 한 가지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완벽한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이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완전히 아시는 전능자에 의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prophecy)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베드로후서 1:21)

하나님의 예언은 공개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 공개된 것은 예언이 이루어질 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방해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가진 마귀가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그토록 발버둥치며 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까지도 이용하셔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원수의 방해 때문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과정은 마치 물 흐르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거나 한 나라이거나, 예언된 운명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서는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서 46:10)

그러므로 예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므로 남은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 예언이 진실하므로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
- 예언에 능력이 있으므로 예언을 하신 하나님도 능력이 있다.
- 세상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다.
- 예언은 먼 훗날의 일을 아는 것이므로 예언을 하신 하나님은 먼 훗날의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신다. 즉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장래를 아신다는 것이 이상합니까? 죽음 이후는 미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인생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일과 죽음 이후를 말씀하시면 이상합니까?

## 예언자들의 활동시기

모세 - BC 1400년

이사야 - BC 740~680년

예레미야 - BC 627~580년

에스겔 - BC 592~572년

다니엘 - BC 605~536년

호세아 - BC 755~710년

아모스 - BC 760~753년

요나 - BC 760년

미가 - BC 735~710년

스가랴 - BC 520~470년

나훔 - BC 660년

요한계시록의 기록 - AD 96년



## 간단한 예언의 성취 확률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확률로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지파로서 베들레헴에서 BC 4년에 태어나는 것이 확률로 얼마나 될까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확률을 따져보자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약 100여개의 성읍 중 하나이므로 1/100이 되고, 유다지파에서 출생할 확률은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으므로 1/12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출생이 예언된 해가 BC 710년경, 유다지파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BC 1880년경이므로 두 개의 예언이 BC 4년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은 단순 계산으로도  $1/706 \times 1/1876$ 입니다.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에 베들레헴에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1/100 \times 12 \times 706 \times 1876$ 입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맞추려면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단 두 가지의 예언만 계산해도 확률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적어도 300가지는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사람이 이루려면 가능성은 제로(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변수와 인간의 변덕과 사탄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천상천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마호멧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일 것이고 석가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일 것이고 교황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들 중 정말로 그럴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으로 섬겨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리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6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 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사야서 42:5~9)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서 46:10)

##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지음



-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 전 종 욱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551(5층)
- 교회전화 : (02) 435-0068
- 휴대전화 : 010-9191-1207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32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8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32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2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와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생활(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 종 욱	168	7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

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